

지방선거에 사활 건 민평당 ‘텃밭’ 호남 민심잡기 올인

당 지도부 총출동 전주 이어 오늘 광주 방문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찾아 본격적인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민평당의 파급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시험무대인 6·13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민심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민평당의 이번 호남행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 11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민평당 지도부는 전북지역 민생 현안을 살피고,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돌며 전북민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이어 12일에는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평당이 창당 이후 첫 행보를 호남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이 사실상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민평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전원의 지역구가 광주·전남·전북일 정도로 호남은 당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또한 첫 시험 무대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여부도 민평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만큼, 창당 후 첫 주말을 호남에서 보내며 지역 표심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평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으로 탄생할 바른미래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자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tbs외교, 45~7일 전국 150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광주·전라

창당후 첫 주말 호남 찾아 최근 일부 여론조사 바른미래당 앞서 고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총력

지역의 민평당 지지도가 10.3%로, 바른미래당(9.3%)을 처음 앞질렀다.

이를 두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야합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간 안 대표는 통합의 근거로 여론조사 지지율만을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장 원내대표는 “평창을 한반도평화의 영구정착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평당은 햇볕정책을 계속하고,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당으로써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평당은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김대중(DJ) 전 대통령령의 ‘햇볕정책’을 내세운 민평당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평당의 이번 호남 방문은 국민의당 탈당 후 창당으로 이어진 급박한 정치 변동 속에서도 민평당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인지를 엿볼 수 있어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최근 송기석·박준영 의원의 낙마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예정되면서 이번 호남지역 지방선거는 ‘미니 총선’에 버금갈 정도로 의미가 커졌다. 이에 따라 민평당의 움직임도 기민해졌다.



조배숙(왼쪽에서 세번째) 대표와 장병완(네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11일 오후 전북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설 명절 장을 보며 흥어를 집어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평당 한 관계자는 “애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인물을 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참신한 인재를 찾아 지역민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현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자가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민평당과 관계 설정 고심 정책연대서 합당까지... 의견 분분

1당 사수 어려워지면 지도부도 적극 나설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주무대로 한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국회 의석 구도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에서 민평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미리미리 민평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는 민평당과 대북 문제 등 공통적 관심사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 내지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김대중(DJ) 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민평당과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거의 없는 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두 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북 문제에 대한 양당 간 정책 공조가 속성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연정도 가능할 것이라 말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11일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대북 문제 등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이 경우 필요하면 각료 추천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양당이 한 뿌리에서 출발한 만큼 아예 합당해야 한다는 말도 일부 나온다.

민주당 설총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를 많이 해서 양당 내에 있는 반대를 좀 무마시키고, 합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면서 “통합의 절차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민평당과의 관계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있다. 우선 명분이 쌓이지 않았다면 대북과 핵심 일부 지지층의 반발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호가 정해지는 5월25일을 기준으로 만약 원내 1당 사수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분위기는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이후에 있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양당 관계설정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 재보선을 통해 1당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당 등 야당이 선전할 경우 후반기 국회 의정당과 상임위원장의 원만한 배분 협상을 위해 여권에 우호적인 민평당과의 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합당한 가결... 전당원투표 73.56% 찬성

내일 통합전당대회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의했다. 합당 여부를 묻는 전(全)당원투표가 70% 웃도는 찬성률로 통과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양당의 합당 절차는 13일 열리는 통합 전당대회만 남게 됐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표결과를 보고했다.

8~9일 케이보팅(K-voting)을 통한 온라인 투표, 10일 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전당원투표에는 5만3981명이 참여해 73.56%에 해당하는 3만970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 연말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해 실시한 전당원투표에서 74.6%의 찬성률

을 기록한 것과 유사한 수치다.

이제 국민의당은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에 해당하는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합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안 대표는 이날 합당 결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미래로 가는 문을 함께 열 수 있게 됐다. 과거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 정치를 나아가는 것이자, 기독교 양당 구태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당협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6~8일 전국 66개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를 받으면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협위원장은 양당의 지분 크기와도 직결될 수 있는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시·군·구의원) 등

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6·13 지방선거’에서 양측이 공천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양당이 중도 개혁을 표방함에 따라 기존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서울, 경기, 인천, 충청에 중박되는 당협위원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른정당이 지난 9일 당 중앙장에인위, 중앙청년위, 청소년특별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20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를 의식한 ‘세 불리기’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양당은 통합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상징색과 로고 선정 과정에서도 각자 자기당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하기 위해 막판까지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粱의 정, 마음의 정, 남원 농·축산물입니다.

NAMWON

SPECIALITY